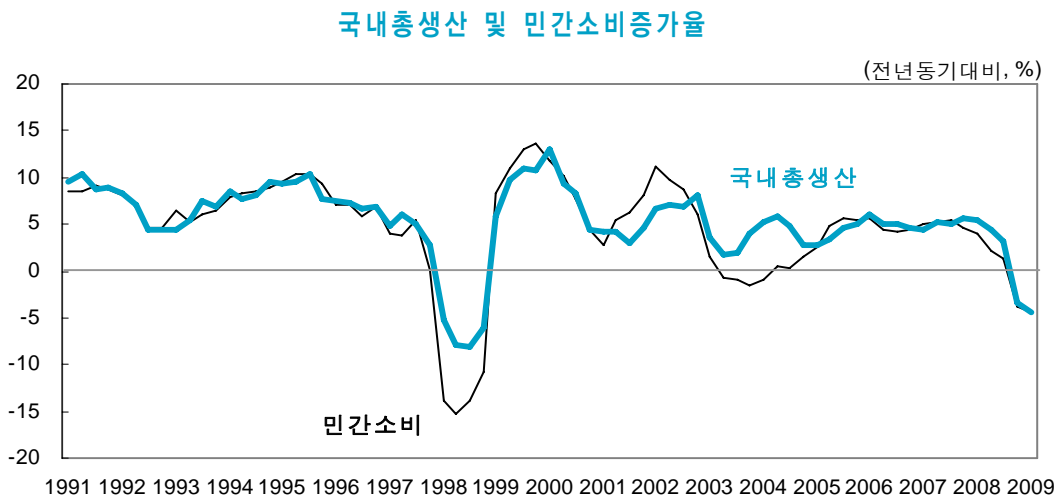


민간소비의 구성항목별 추이에 대한 분석

연구위원 김영일

1. 분석의 배경

- 최근 경기 급락세가 진정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가운데, 향후 민간소비를 비롯한 내수의 부진이 해소될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.
- 특히 금년 들어 민간부문의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모두 침체된 상황을 지속하는 가운데 민간소비의 급락세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남에 따라, 내수의 구성항목들 중에서도 민간소비가 개선될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
 -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 4/4분기에 급락세(전분기대비 -4.6%)를 나타내었던 민간소비가 금년 1/4분기에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이 소폭 상승(0.4%)



- 본고에서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에 있는 민간소비의 최근 추이를 구성항목별로 분석하고, 이를 바탕으로 향후 민간소비 개선 가능성에 대해 점검해 보고자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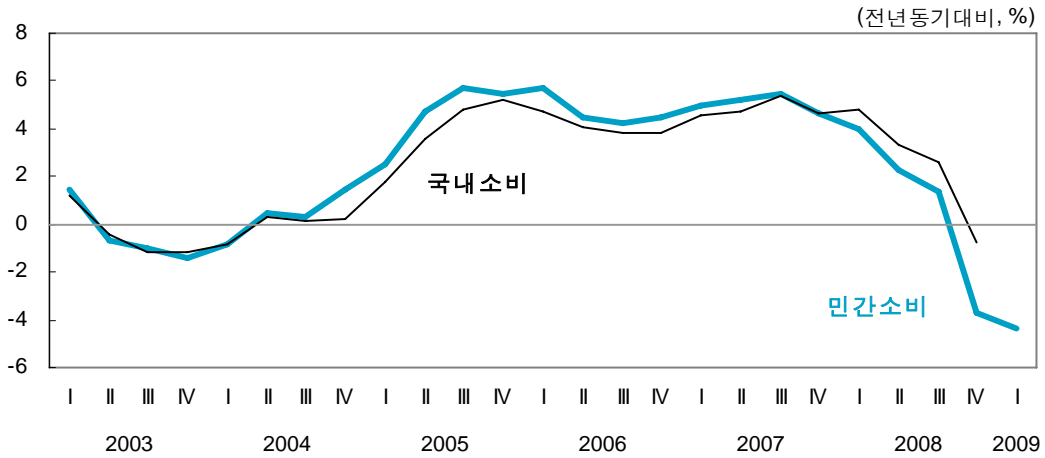
민간소비의 구성항목

- 국민계정상 민간소비는 일차적으로 국내소비와 순해외소비로 구분됨.
 - ‘국내소비’는 우리 국민(거주자)의 국내소비는 물론 외국인(비거주자)의 국내소비를 포함하며, ‘순해외소비’는 거주자의 해외소비에서 비거주자의 국내소비를 차감하여 계산
 - 따라서 ‘국내소비’와 ‘순해외소비’를 합한 개념인 ‘민간소비’는 우리 국민의 국내외 소비를 의미하는 반면, ‘국내소비’는 소비주체의 국내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소비활동을 의미
 - 순해외소비가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, 큰 변동성을 가짐에 따라 민간소비와 국내소비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음.
- 한편, 국내소비는 재화소비와 서비스소비로 구성되는데, 재화소비는 내구성을 기준으로 내구재, 준내구재 및 비내구재로 구분됨.
 - 본고에서는 내구재와 준내구재에 대한 소비를 ‘내구소비’로 분류하는 한편, 비내구재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‘비내구소비’로 분류
 - 내구소비는 전체 국내소비의 15% 정도를 차지하며, 비내구소비는 국내소비의 약 80% 정도를 차지

2. 국내외 소비의 구분을 통한 민간소비 추이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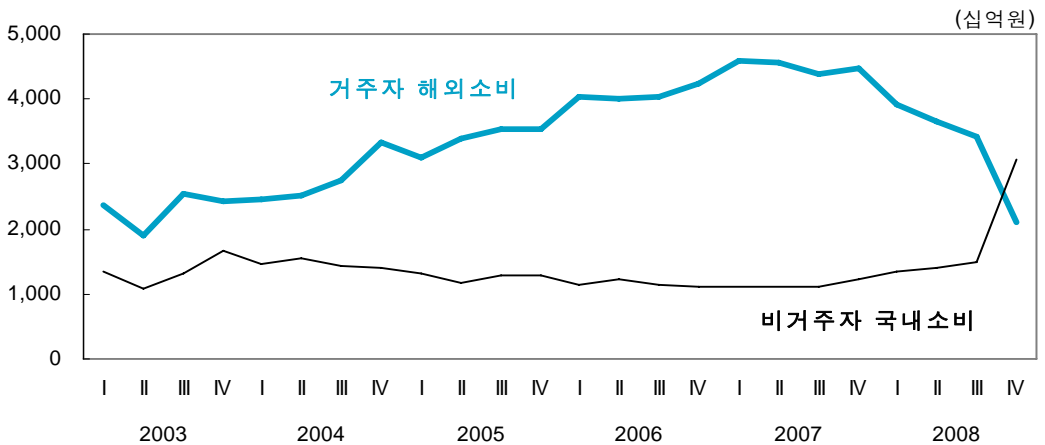
- 최근 민간소비가 급격히 위축된 모습을 나타낸 데에는 해외소비의 급격한 감소세가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.
 - 작년 4/4분기에는 민간소비가 전년동기대비 -3.7% 급락했으나, 국내소비는 -0.8%의 비교적 완만한 감소세를 나타낸 바 있음.
 - 이는 우리 국민의 국내외 소비활동(민간소비)이 급격히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국내에서 이루어진 전반적인 소비활동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감소하였음을 의미

민간소비증가율과 국내소비증가율 비교



- 작년 4/4분기중 거주자 해외소비(실질기준)는 전년동기대비 -53%(1.7조원) 급감했으며, 같은 기간중 비거주자의 국내소비는 150%(1.9조원)의 이례적인 급증세를 기록했는데, 이는 민간소비와 국내소비의 감소율 차이를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
- 비거주자 국내소비의 상당부분이 여행자의 서비스 소비라는 점을 고려할 때, 이의 증가는 국내 서비스소비의 부진을 일부 완충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임을 시사

거주자 해외소비와 비거주자 국내소비(실질, 계절조정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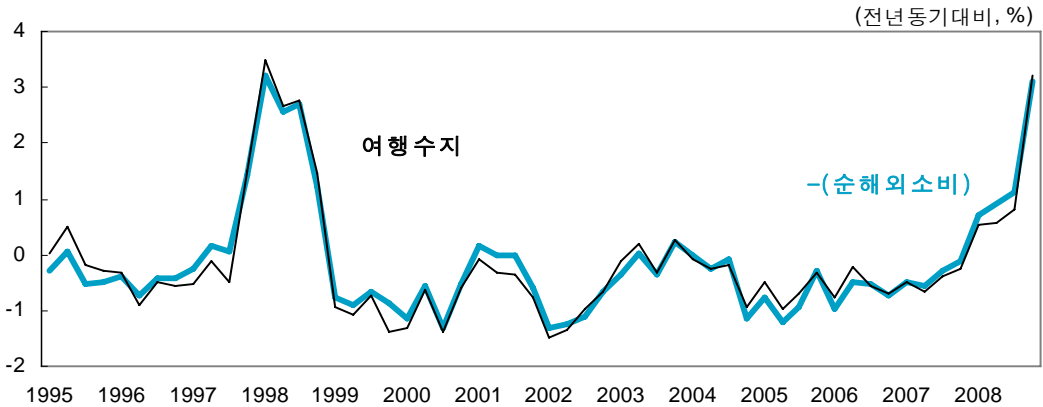
■ 민간소비와 국내소비의 차이인 순해외소비가 급감한 상황은 금년 들어서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.

● 국제수지상 여행수지가 흑자를 지속('08.4/4분기: 7.1억달러 → '09.1/4분기: 5.2억달러)한 것으로 나타나 순해외소비 감소 추이가 유지되었음을 시사

－ 순해외소비(거주자 해외소비-비거주자 국내소비)는 여행수지(여행수입-여행지출)와 유사한 개념

● 여행수지 추세를 감안할 때, 금년 1/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이 -4.4%임에 비추어 국내소비는 -2%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됨.

순해외소비 및 여행수지의 민간소비 증가율에 대한 기여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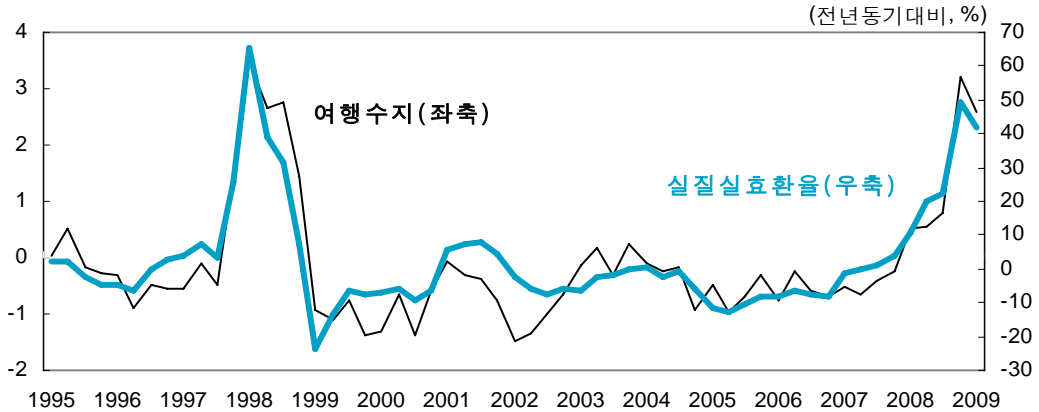
주: 여행수지는 (명목)여행수지의 (명목)민간소비 증가율에 대한 기여도이며, -순해외소비는 (실질)순해외소비의 (실질) 민간소비 증가율에 대한 기여도의 (-)값으로서 국내소비 증가율과 민간소비증가율의 차이를 설명.

■ 한편, 순해외소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율인 것으로 보이며, 따라서 향후 원화가치의 점진적인 상승(환율 하락)에 따라서 민간소비증가율이 국내소비 증가율을 하회하는 현상은 점차 소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.

● 작년부터 거주자의 해외소비가 빠르게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은 원화가치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인 데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임.

－ 특히, 2008년 4/4분기에는 실질실효환율이 전년동기대비 50% 정도 급상승하면서 비거주자의 국내소비도 급증한 것으로 판단됨.

실질실효환율 증가율과 여행수지의 민간소비 증가율에 대한 기여도



- 간단한 회귀분석에 따르면, 원화환율의 10% 상승은 순해외소비의 감소(여행수지 개선)를 통해 국내소비 증가율을 민간소비보다 0.56%p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.
 - 이는 2008년 4/4분기 실질실효환율이 전년동기대비 50% 정도 상승함에 따라 국내소비 증가율이 민간소비에 비해 2.9%p 높아졌던 현상을 설명

순해외소비의 민간소비증가율 기여도 변화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

(’95. 1/4 - ’08. 4/4, 전년동기대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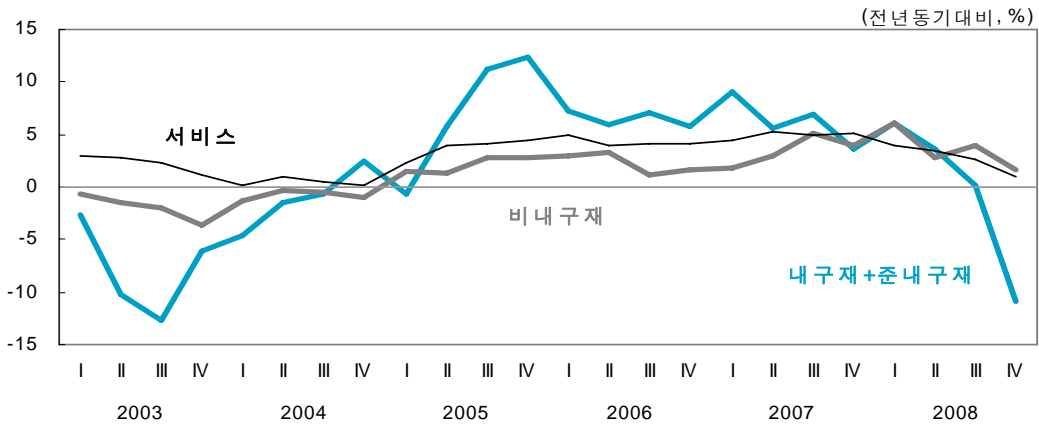
y: 순해외소비의 민간소비증가율 기여도			
상수	y(-1)	실질실효환율 증가율	Adjusted R-squared
0.11 (s.e.=0.045)	0.33 (s.e.=0.061)	-0.056 (s.e.=0.418)	91.4%

-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, 향후 원화 가치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경우 민간소비 증가율과 국내소비 증가율간의 격차가 점차 소멸될 것임을 시사
 -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원화 가치가 상승세를 지속하게 된다면 민간소비 증가율이 국내소비 증가율을 다소 상회하는 상황이 관찰될 수도 있을 것임.

3. 소비의 형태별 구분을 통한 민간소비 추이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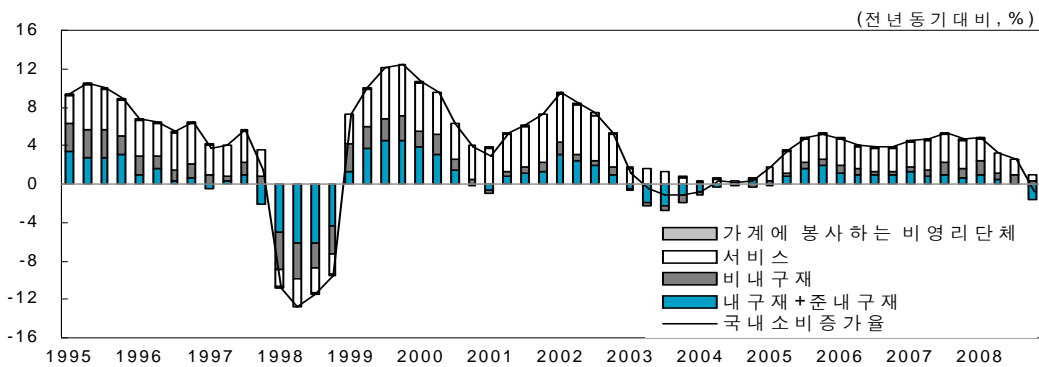
- 국내소비 추이를 형태별로 구분해 보면, 최근의 소비 부진이 주로 내구성 소비가 급락한 데에 기인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.
- 작년 4/4분기중 내구소비는 급격히 하락(-10.9%)한 반면, 비내구재 및 서비스 등의 비내구소비는 증가율(1.2%)이 완만하게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음.

형태별 민간소비 증가율



- 한편, 작년 4/4분기중 국내소비 증가율(-0.8%)에 대한 각 형태별 소비의 기여도를 살펴보면, 내구소비는 국내소비를 -1.6% 감소시킨 반면, 비내구소비는 국내소비를 1%(비내구재 0.4% + 서비스 0.6%)정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남.
- 즉, 전반적인 경기 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, 비내구소비는 국내소비의 하락이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데에 기여

국내소비증가율에 대한 각 형태별 소비의 기여도



- 이와 같이 형태별로 국내소비 증가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, GDP 등의 경기변동에 대해 반응하는 정도가 형태별로 통상 3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데에 주로 기인
- 경기침체시 내구소비와 비내구소비의 증가율 실적치를 비교해 보면, 내구소비의 감소는 생산의 감소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는 반면 비내구소비의 감소는 생산의 위축 정도에 비해 작게 나타남.
 - 또한, 내구소비는 GDP 등의 경기변동에 대해 비내구소비에 비해 통상 3배 이상 민감하게 반응
 - 한편, 국내소비에 대한 비중이 80% 이상인 비내구소비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는 현상은 전체 민간소비의 변동을 줄이는 데에 기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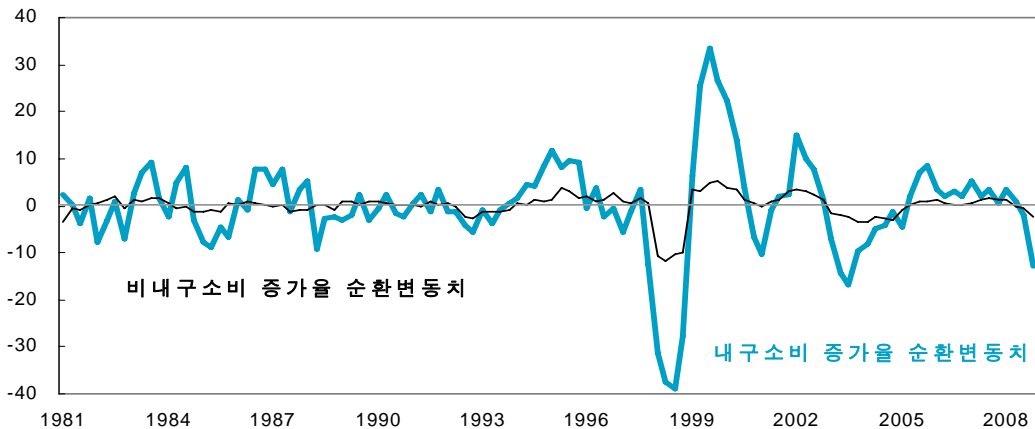
생산과 소비의 실적치 및 구성항목별 소비순환변동의 표준편차

(단위: %)

	GDP	민간소비	국내소비	내구성 소비	비내구성 소비	소비재	서비스
실적치 ('08. 4/4)	-3.4	-3.7	-0.8	-10.9	1.2	-3.3	1.0
실적치 ('09. 1/4)	-4.3	-4.4	na	na	na	na	na
표준편차	3.1	4.2	3.6	10.1	2.7	5.3	2.6

주: 각 표준편차는 '81.1/4~'08.4/4기간 해당 순환변동치를 이용해서 계산

내구소비 및 비내구소비 증가율의 순환변동



4. 요약 및 시사점

- 최근 해외소비 급감은 민간소비 증가율이 국내소비 증가율을 상당폭 하회하는 요인이 되었으며, 이는 원화가치의 하락(환율 상승)에 주로 기인
 - 해외소비의 급격한 감소세는 최근 민간소비의 위축에 상당부분 기여하였는데, 이는 민간소비증가율이 국내소비증가율을 큰 폭으로 하회하는 요인으로 작용
 - 이러한 해외소비의 위축(여행수지 흑자)은 금년 들어서도 지속되는 모습인데, 이는 같은 기간 원화가치의 하락(환율 상승)에 주로 기인함.
 - 한편, 민간소비증가율이 국내소비증가율을 하회하는 현상은 향후 원화가치의 점진적인 상승(환율 하락)에 따라 소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.
- 향후 경기회복 국면에서는 전체 민간소비가 국내총생산 증가율과 유사한 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, 소비 형태별로 회복되는 모습은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
 - 최근의 성장률 하락이 수출 급락에 의해 주도되면서 민간소비가 국내총생산과 유사하게 위축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, 향후 경기회복 국면에서도 민간소비가 국내총생산의 증가와 유사한 모습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.
 - 이는 수출의 상대적 호조에 기인하여 GDP의 감소가 민간소비 위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던 1998년 외환위기와 2003년 카드버블 붕괴에 따른 경기침체기와는 상이한 모습
 - 소비 형태별로는, 내구성 소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비내구성 소비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.
 - 최근의 소비부진은 주로 내구소비의 급락에 기인한 반면, 비내구소비는 완만한 감소세를 기록함으로써 국내소비의 하락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됨.
 - 이와 같이 형태별로 소비증가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, GDP 등의 경기변동에 대해 내구소비가 비내구소비에 비해 통상 3배 이상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기인
 - 따라서, 향후 경기회복 과정에서는 내구재 및 준내구재 소비가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한편, 비내구재 소비와 서비스 소비의 회복세는 완만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.

